



불교인들의 축제 부처님오신날이 돌아왔다. 우리는 이날을 기념해 부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가르침을 되새긴다. 우리 주변의 불자 유명인들은 부처님오신날을 어떻게 보낼까. 그들을 통해 돌아본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더불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주고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편집자 주>

# 봉축 등 달고 부처님 말씀 되새겨요



주호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조계사 봉축법요식과 대구지역 사찰 방문”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주호영(56·법명 자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6월 19대 국회 개원과 지역 의정 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그래도 부처님오신날 행사에는 매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특별한 신심으로 유명한 주 의원답다. 올해 부처님오신날도 마찬가지다.

“매년 대구사원주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연등축제에 참석하고, 부처님오신날 당일에는 조계사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가 오후에는 지역에 내려와 보광선원, 한마음 선원 대구지원, 삼보사 등 절에 갑니다. 초파일 보름 전부터 인연 있는 사찰에 꼭 등을 달러 다니는 것도 일과중 하나지요”

주 의원은 부처님오신날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을까? 주 의원은 “평화”라고 했다.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불서를 선물 받고 싶습니다.” 신중일 기자



최문순 강원도지사

“집 가까운 절 찾아가 할일 챙기며 성찰”

최문순(56) 강원도지사는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민주당 불자모임인 연등회 회장을 맡는 등 불자위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최문순 도지사는 당선 후에도 깊은 신심에서 비롯된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도정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작년엔 어머니께서 다니시던 춘천 삼운사 봉축법회에 참석했다. 올해도 절을 찾아가 법회에 참석하고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볼까 한다”며 부처님오신날 일정을 소개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마음의 평정을 찾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내 곳곳의 어려운 이들을 비롯해 해야 할 일을 면밀히 살필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평소 속초 신흥사와 평창 월정사, 인제 백담사 등 강원도 명찰을 자주 다닌다는 최 지사. 그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마음을 부처님오신날 불자들이 서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꼽았다. 노덕현 기자



강창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제주 봉축법회 참석 지인들과 ‘차’ 나누”

국회의원 불자 모임인 정각회 부회장이자 민주통합당 불자 의원 모임인 연등회 회장 강창일(60) 국회의원은 불심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불자다. 매년 부처님오신날이면 제주연합봉축대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2010년에는 정각회 선원을 개원하는 등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강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어려운 이웃을 한번 더 생각하고 사회 곳곳과 소통하는데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역구인 제주도의 한라산 관음사를 자주 찾는다. 강 의원은 “관음사의 고즈넉한 모습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을 때가 많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끝으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음미할 수 있는 ‘차’는 부처님의 소박함과 그윽함을 좀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매개체”라며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이 차를 서로 선물하며 성찰의 기회를 갖도록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탤런트 나문희 씨

“절에 못가는 대신 단주 등 이웃에 선물”

나문희(71·법명 칠보화)씨는 최근 뮤지컬 ‘진정염마’의 주연배우를 맡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때문에 그는 이번 부처님오신 날에는 자주 찾는 사찰을 방문하지 못하게 돼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30여 년 동안 인연을 이어왔다. “내가 있는 자리가 부처님 계신 자리이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지관 스님의 가르침을 항상 새겨온 나문희씨는 “가장 의지가 됐던 사람 중 한 분이셨는데 많이 생각이 난다”며 최근 열반한 스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했다.

“배우라서 감정적인 일들을 많이 겪어요. 특히 공연이 끝나면 허탈할 때가 많죠. 그럴 때 불교의 가르침이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침마다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독경하는 나문희 씨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인들에게 단주나 핸드폰 그리 등 불교성물을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탤런트 남일우 씨

“아내와 수안사 가서 부처님 닻기를 발원”

탤런트 남일우(74·법명 영담)씨는 부처님오신날은 본찰인 서초동 수안사에서 아내이자 배우인 김용림 씨와 법요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수안사와 정토회 등에서 신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집에 작은 법당을 만들어 매일 아침 아내와 예배드리며 불자로써 최선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는 늘 부처님의 삶을 닮고 싶다고 한다.

이번 부처님오신날 역시 남씨는 그분의 삶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다. “늘 부처님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감히 제가 닮을 수 있는 분은 아니지요. 인간으로 왔다 인간으로 간 그분의 삶을 늘 존경하고 이웃에게 보시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남일우 씨는 “불서·불교계 신문 등을 주거나 받고 싶다. 부처님 말씀을 이웃에게 알리고 싶어서다. 또한 이웃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불자로서 보람된 일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탤런트 김영애 씨

“경전 선물하고 감사의 등 밝혀요”

탤런트 김영애(62·법명 문수)씨는 평소 부처님오신날 오대산 상원사 또는 서울 도선사를 방문한다.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는 생각으로 절에 가서 기도하진 않아요. 그냥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감사기도’를 하는거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요”

김영애 씨는 불자들에게 넓은 시야를 갖고 살아가기를 권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나 살기 위해 급급했다면 지금부터는 나를 돌아보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김영애 씨는 지인들에게 법정 스님의 서적이나 <금강경>과 같은 경전 등 좋은 불서를 선물해주고 싶다고 했다.

“명절 뿐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에도 선물을 즐겨받는데 왜 부처님오신날에는 그런게 없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라도 지인들과 불서를 주고받으며 부처님오신 뜻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이나은 기자

##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빙산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중요합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뒹)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뒹) 6cm]



주문은 **현불상 / 02)2004-8216**  
☎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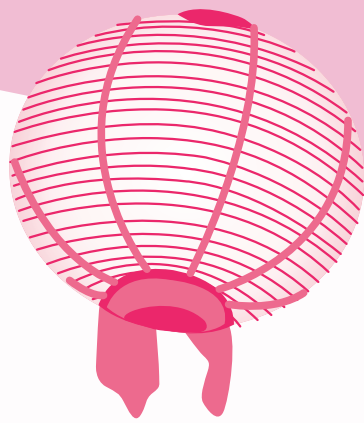
###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신도 무문관 수행 및 사찰 공부방



1. 무문관 체험 7일 ~ 3개월 - 자유  
- 음주, 흡연 완전 금지
2. 무문관 수행  
- 하루한끼 공양·두문불출
3. 사찰 공부방 하루 세끼 공양 - 채식  
- 최적의 면학분위기, 각방 세면장, 화장실
4. 감포도량 거주 행자모집(무일선원)

☎ 054)753-8228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감포도량)

##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중, 가위눌림, 현대 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